

## 청년기본소득 시작점에서

### 나민진

청년진보당 당원

2022년 12월 28일 성남시청 앞에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성남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당장 올해, 2023년부터 기본소득을 못 받게 되는데 해당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나에게 기자회견문을 써 줄 수 있냐는 제안을 받아 처음으로 기자회견문을 써 보게 되었다.

기자회견문이라는 거창한 이름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매사에 걱정과 생각이 많은 성격 때문일까 미루고 미루다 써본 첫 기자회견문은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고 작성하니 걱정했던 것보다 편하게 기자회견문을 작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작성한 내 생애 첫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고를 쓰게 될 줄은 몰랐다.

청년기본소득은 2016년 성남에서 최초로 ‘성남시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청년복지정책으로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24세 이상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생기기 전 타지역에 사는 친구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하며 성남에 사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이후 경기도 청년기본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전체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우리가 내는 세금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조례였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직접적인 당사자인 98년생인 나는 22년 7월부터 25만원씩 7월, 10월, 12월 3번 총 75만원을 성남지역화폐로 받았지만 마지막 4회차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의 당사자이다. 그동안 지역화폐로 받은 돈으로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거나 명절 차례를 지내기 위한 음식 재료를 사는 재료비, 최근에 가지게 된 취미인 등산을 위해 등산 장비를 구매하

는 등 나도 좋지만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 뿌듯함까지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청년기본수당을 폐지하기 위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와 황당한 마음을 담아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다.

성남은 지난 지방선거 때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며 기존 시에서 30억 예산을 배정하면 경기도에서 70억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여 진행되던 청년기본소득의 예산 편성 대신 ‘청년 취업 ALL PASS’ 사업이라고 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취업 청년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면 이미 취업을 해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종의 청년 및 그 외 다른 이유로 신청대상에 들지 못하거나 해당 사업에 필요성이 없는 청년들은 시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이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시장의 정권변경으로 인해 청년들의 한줄기 희망이었던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건 진정으로 청년의 삶, 시민의 삶을 생각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

원고청탁을 받아 내가 쓴 글이 들어갈 ‘기본소득과 나’ 라는 코너의 이름을 보며 나는 기본소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 삶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긴 글을 읽는 걸 힘들어하는 내가 지난 계간지의 글들을 몇 번이나 읽으며 내 원고를 써 내려갔는지 모르겠다. 내가 모르고 있었던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들과 나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의 글을 읽으며 기본소득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내가 몰랐던 이야기를 볼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